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동성연애다.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요즘 시대에 오는 무슨 문화다. 성향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교육자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관찮다고 지지하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결국 목적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평등하게 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독교, 무슬림, 불교 똑같다. 평등하게 하자.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뭐 성적 성향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정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또 헬라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여성을 경시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매춘부는 쾌락을 위하여, 첩들은 매일 동침함을 위해서, 아내는 아이를 낳고 가정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뭐 아이 낳는 그 일로만 필요한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하와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의 허리에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머리에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의 머리가 되었겠죠. 발가락에서 여성을 만들었으면 여성은 남자의 종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갈비뼈를 취해서 몸에서 돕는 배필로, 그 인권과 존엄과 영혼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동일 하지만 순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갈3장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천년 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냐 주인이나 그 종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권이나 그 존엄이나 영혼은 동일한 거다. 또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거다. 이랬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도 무슬림에서는 여자가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 되는 곳마다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남자하고 동등 되고...하

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 아내 보고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질서 차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알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알도록 신비한 비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에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아내보다 남편이 뛰어나다가 아니고 질서예요. 질서. 고전11장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똑같다 그랬어요. 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능력도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 거룩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심자에게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한 남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아주 신비한 비밀이죠.

고전11:7-9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순서를 얘기합니다. 고전11:11,12절을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아담인 남자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하는 말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하는 말은 각각이다. 아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남편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다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에서 아내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도 행20: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산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고난과 조롱과 침 뱉음과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랑을 다하고 교회를 샀습니다. 세웠습니다.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전부 다 믿고 인식을 했어요. 행5: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받는 데 쓰이게 되니 너무 기뻐하는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면 목사님 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할 때 물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서 다시 물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하니 사랑하는 게 쉽겠대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아느냐? 사랑은 목숨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다~ 준 게 그게 사랑이다. 어느 게 쉽겠느냐 하니 복종이 쉽다네.

여러분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33절에는 존경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남편들에게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고 모든 걸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예요. 그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정도 물질 정도가 아니고 다 주신 것 같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위험할 때 지켜주고, 고난 받을 때 함께 해 주고, 모든 걸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까지도 줄 만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거룩한 아내로 착한 아내로, 또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아내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첫째는 무슨 사랑이예요? 자기를 주심 같이 둘째 사랑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로 씻듯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듯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나 흠이나 약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혹시 남편들 보기에 아내가 부족하거나 아내들 보기에 남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그 부족함을 채워감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많고 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그 피 값과 희생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니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성장 되고 양육되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잘 모르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계속 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죄 한 번 지었을 때 마다 그때마다 벌을 다 주고 지옥 보냈으면 누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듯이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

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각각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남편도 그리스도의 지체, 아내도 그리스도의 지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믿는 가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되어서 자꾸 예배도 드리지 마라. 믿지 마라. 죄 짓자. 이런 건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무촌입니다. 무촌 촌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이기려 하지 말고 남편을 존귀 여기고 순종하고, 남편들이여~ 자꾸만 아내를 지적하고 모자란다.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주고 양육하고 사랑해 주고 곧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1: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도서 2: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편들에게 더 쉽고 편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진정한 복종은 존경이며 진정한 사랑은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거같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 주고 지켜주고 하도록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직접 세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탄의 진짜 목적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느끼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되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약하고 부족한 것도 기다려 주고 용서해 주고 채워주고 성장 되게 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